

## 빌라 가격 상승률 12년 만에 최고

연립·다세대(빌라)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8월까지 누적 가격 상승률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고, 최근 추세라면 2008년 이후 연중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의 한 주택가. 사진=shutterstock

지난 22일 '경향신문'이 KB국민은행이 이날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8월간 전국 연립·빌라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4.66%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2.61%)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연간 연립·빌라 가격 상승률은 6.47%로 2008년(7.87%)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월평균 상승폭이 남은 9~12월 기간 중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가격 상승률은 6.99%로

지난해보다 더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월 들어 0.82%나 가격이 상승한 터라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상승폭이 2008년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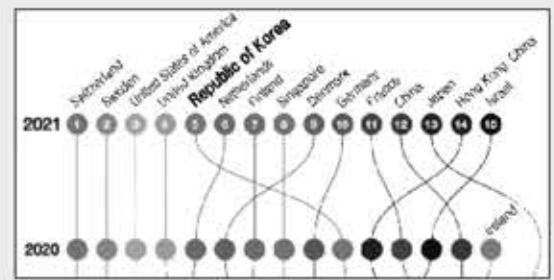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전국 평균 보다 가격 상승폭이 크다. 올 1~8월 기간 중 서울은 4.73% 올라 지

난해(2.77%)의 1.7배 수준이다. 경기(6.02%)와 인천(6.24%)은 가격 상승폭이 서울보다 더 높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연립·빌라로 매매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에선 통상 아파트 거래량이 연립·빌라보다 많지만 올 1~8월 기간 중에는 연립·빌라 거래량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 한국,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5위·아시아 1위



▲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 변동. 한국은 전년 대비 5계단 상승한 5위를 기록했다. 그래프=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의 글로벌 혁신지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21일 '한겨레'에 따르면 UN산하기구인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가 전날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은 역대 최고인 세계 5위,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1위부터 4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 13위에 올랐다. 한국은 2020년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됐다.

한국은 투입부문 5개, 산출부문 2개 등 총 7개의 평가분야 가운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등으로 혁신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산출부문 2개 평가분야가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5위로 크게 개선됐다.

한국의 세계 1위 세부지표는 GDP 대비 특허출원, GDP 대비 PCT출원, GDP 대비 특허패밀리(2개국 이상 출원), GDP 대비 디자인출원(이상 지식재산 관련), 인구 대비 연구원, 인구 대비 기업연구원, 정부 온라인 서비스, 전자정부 온라인 참여, 하이테크 수출 비중 등이다.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등이 전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래 경제발전 등의 주요 원동력인 혁신 역량을 측정해 각국에 공공정책 또는 경영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했다.

## 추석 선물 중고 거래 급증

올해 추석 명절 기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각종 선물세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현금화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 백화점 추석선물코너. 추석 명절을 전후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각종 선물세트 거래가 급증했다.

지난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홍삼, 인삼, 참치, 햄, 삼푸, 식용유, 화장품 등을 30~7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과일이나 축산품 등과 같은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었다.

선물을 판매하는 이유로는 "추석 선물로 들어왔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품이 있어서", "비슷한 게 많아서" 등을 제시했다.

필요 이상의 선물을 받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쌓아놓고 억지로 쓰기보다는 중고 물품으로 되팔아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포장지를 뜯지 않거나 쇼핑백 그대로 판매해 다시 선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들도 다수였다.

구매자 입장에서선 꼭 필요한 공산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비가 많은 김, 참치 등이 대표적이다.

한 구매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시중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처분하는 것들이 많다"며 "이 기회에 득템하고 용돈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